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5.(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곽효정**	☎044-300-7175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곽효정 의원, AI 부정행위의 사각지대, 학교 시험의 공정성 지켜야

-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선제적 대응 촉구 -
- 수능에 준하는 내신시험 관리 지침 마련 등 네 가지 대책 제안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곽효정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종시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적발된 사례가 전부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부가 감독인력 8천4백여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했음에도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일선

학교의 시험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타인이 자신의 가방에 전자기기를 몰래 넣어 부정행위자로 몰릴 것을 우려해 가방에 자물쇠를 채운 사례를 소개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마저 억울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교육부 조사에서 내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4건 확인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학 모집인원의 80% 이상이 수시모집인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내신시험 하나하나는 또 하나의 수능"이라며 학교 시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에 ▲수능에 준하는 내신시험 관리 지침 마련 ▲감독교사 전문교육 및 법률·행정적 보호체계 구축 ▲전파·금속 탐지 장비 등 실효성 있는 탐지 기술 도입 검토 ▲AI 윤리 및 부정행위 예방교육 강화와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탐지 기술 도입 과정에서 정확성과 비용, 학생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소송 등의 부담을 학교와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시험의 공정성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AI가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정직하게 노력하는 태도, 타인의 노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